



2006 학년도 경찰대학 제 1 차 시험 (언어영역)

응시지구 () 수험번호 () 성명 ()

※ 총 12 쪽입니다. 빠진 쪽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다음 중 맞춤법 규정에 맞는 단어끼리 묶인 것은?

- ① 안팎, 날리리 ② 멍쌀, 가랭이
- ③ 개거품, 달맞이 ④ 국말이, 꺾꽂이
- ⑤ 가래토시, 기읍

2.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이 작품은 작가의 젊은 시절의 사랑이 이 소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②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발표회에 부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이 부분은 글의 서두로써 필자의 개성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다.
- ④ 온 겨레가 한결같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꽃을 ‘나라꽃’이라고 합니다.
- ⑤ 젊은 사람이 자신의 명리보다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3.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예상되는 독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 1 차적 대상은 청소년으로 삼지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및 대중매체 종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② 논의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대중매체의 종류를 조사해 보고,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 ③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 청소년기의 특성을 다룬 논문과 대중매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 대중매체와 관련한 청소년 대상의 설문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다. |
| ④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 | 대중매체의 특성이나 파급력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다. |
| ⑤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 | 대중매체는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여 대중매체의 올바른 수용이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4. <보기>에서 띄어쓰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 <보기> —

㉠ 두시 삼십분 오초 ㉡ 먹을만큼 먹어라.
 ㉢ 충무공 이순신장군 ㉣ 비가 올 성시다.
 ㉤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 <보기>의 개요에서 제목과 결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제목 : (㉠)

서론 : 도덕 불감증의 만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본론 : 1. 도덕 불감증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사회 전반에 만연된 이기주의 때문이다.
 2)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때문이다.
 3)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 파괴를 초래한다.

2. 도덕 불감증의 치유 방안은 무엇인가?
 1)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2) 윤리 교육과 종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 공정하고 엄격한 감시와 고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 : (㉡)

- ① ㉠ : 건전한 사회와 윤리
 ㉡ : 도덕과 윤리 규범에 대한 실천 교육이 필요하다.
- ② ㉠ : 도덕 불감증의 극복을 위하여
 ㉡ :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③ ㉠ : 도덕성과 물질주의
 ㉡ : 도덕 불감증은 윤리 교육과 종교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④ ㉠ : 도덕 불감증의 적
 ㉡ :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 ⑤ ㉠ : 도덕성 강화와 실천
 ㉡ : 도덕 불감증은 윤리 교육의 제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6. <보기>의 초고를 퇴고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나) 흔히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악의 **등정**에서 무슨 봉을 정복했다는 등의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라디오 뉴스를 듣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그 산봉우리를 참으로 **정복**한 것이라면 거기서 장기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 시간도 못 되어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오고야 말지 않는가. 목숨을 걸고 기어오르는 그 의지력과 용기가 가상해서 산이 잠시 받아들인 줄도 모르고 정복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소리인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산의 실체를 모르고 방심하거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친 과욕과 자만심을 가진 데에서 그런 결과를 **㉠**맞은 것이다.

(다) 금세기 전반기를 살다가 간 영국의 등산가이며 저술가인 스미스(F. S. Smythe)는 **산의 정기**(The Spirit of the Hills)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정복되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한 부분이며 만물에 이어진 아름다움과 장엄이다. 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배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자연과의 **친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등산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날의 계획 중 한 가닥 황금의 실일 뿐이다. 마치 군인들이 일찍이 다른 군인들이 점령한 도시를 짓밟듯이 그렇게 정상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다만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라) 이와 같은 정신은 비단 등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도 해당될 것이다.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법정, ‘자연과 인간’에서 -

1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정적인 어조로 글쓴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사색과 성찰이 개성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③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일상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중심 생각에 이르고 있다.
- ⑤ 여러 분야에서 근거를 동원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12. 글쓴이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보기>

산은 ()의 대상이 아니라 ()의 대상이다.

- ① 등정 — 정복 ② 등정 — 훈련 ③ 정복 — 방문
- ④ 정복 — 훈련 ⑤ 친화 — 훈련

13. <보기>에서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보기>

그는 자신이 순리에 ㉠맞는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 자신할 수 없었다. 한동안 공부를 소홀히 했던 까닭에 쓸쓸한 최후를 ㉡맞는 참담한 심정으로 졸업 시험을 보러 온 상태였다. 그것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맞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은 것처럼, 유학 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14. (다)의 주된 전개 방식과 같은 것은?

- ①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종합한 백과사전이다.
- ② 그의 얼굴은 쪽 찌진 눈매에 날카로운 콧날, 게다가 턱마저 각이 져 있었다.
- ③ 소설이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생과 아름다움을 산문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 ④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독립 운동가 신채호는 그것을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설명했다.
- ⑤ 민요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기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동부 민요, 제주 민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5.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글쓴이가 충고한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보기>

섬진강의 물을 막아 동진강으로 유로를 변경시켜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하는 섬진강 댐은 운암제를 폐기하고 신축한 것이다. 섬진강 댐을 건설함으로써 관개 용수 확보가 더욱 용이하여 동진강 하구의 계획도 간척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발달된 문명을 향유하게 된 것은 동양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탐구하고 개척하는 과학 정신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 ① 과학은 종교의 도움 없이는 ‘입증된 지식의 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 ② 과학은 무엇이 가능한가는 말해 주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 ③ 과학은 인간을 통제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을 공존케 하는 근본 동력입니다.
- ④ 과학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유일하게

정직한 방법입니다.

- ⑤ 과학을 모르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사회학자들은 파시즘이 단지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성격에 내재한 항구적인 것이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단지 그 극단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파시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해 있어 그것이 파시즘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중에는 성(性)과 가족,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범주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범주들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가르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에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파시즘은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히틀러에 따르면, “남녀 각자가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한, 남녀 간 갈등은 (...)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자연이 부여한 임무’란 남녀의 성적 특징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기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즘은 “전쟁이 남자의 것이라면, 어머니다움은 여자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이러한 남녀의 **자연성**이 나타났던 과거를 황금시대로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쟁을 미화하는 파시즘에 있어서는 호전성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지닌 남자가 국가의 주체가 된다. 이 주체는 부드러움과 가정의 수호천사, 자녀 양육의 책임 등을 지닌 여성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권력은 남자의 영역이며, 가정 또는 사적인 생활은 여자의 영역이 되고 만다. “어머니가 없는 민족, 요람이 없는 민족은 (...)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결국은 노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성별 구분이 뚜렷한 가족주의적 국가·민족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여성의 모성성(母性性)을 ㉠**신화화(神話化)**하는 동시에 여성을 가정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제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독신자나 이혼녀, 그리고 자녀를 안 낳으려는 부부 등을 비정상적으로 보게 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 자율적인 개인적 삶이 들어설 공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적 삶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파시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를 구분하고 남성을 공적 영역에, 여성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켜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쟁점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 또한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소중함 못지않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소중하다. 거기서 민주적 사회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1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시즘의 형성과 가족의 기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② 일상적 삶에 침투한 파시즘의 실체, 무엇이 문제인가?
- ③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파시즘적 요소는 무엇인가?
- ④ 파시즘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⑤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가로막는 파시즘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17. 위 글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택한 글쓰기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분석적 접근을 통해 파시즘의 성격을 규명한다.
- ②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 ③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론하여 파시즘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 ④ 반대론자와 충돌하는 이유를 밝혀 파시즘의 비민주성을 보여준다.
- ⑤ 파시즘의 요소를 우리 현실에서 찾아 파시즘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한다.

18. 위 글에서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더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 ‘-화(化)’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한자어의 경우 이렇게 일부 명사의 뒤에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예가 많다.

- ① ‘생명력’의 ‘-력(力)’ ② ‘자연성’의 ‘-성(性)’
- ③ ‘책임감’의 ‘-감(感)’ ④ ‘불가피’의 ‘-피(避)’
- ⑤ ‘주체적’의 ‘-적(的)’

19. <보기>에서 글쓴이가 옹호할 만한 것은?

— <보기> —

- ㉠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효지.
- ㉡ 집을 팔려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해.
- ㉢ 남자의 정년은 65 세, 여자의 정년은 61 세가 적당하지.
- ㉣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위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파시즘은 자유주의자들의 삶의 태도를 긍정하지 않는군.
- ② 파시즘은 전쟁을 예찬하면서 모든 국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 하는군.
- ③ 파시즘은 과거의 황금시대에 나타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군.
- ④ 파시즘은 남녀의 성 역할의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군.

⑤ 참다운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존중해야 하겠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붓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서정주, '춘향 유문(춘향의 말 3)' -
 (나)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조지훈, '민들레꽃' -
 (다)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즘은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 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

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이용해서 애절한 사랑을 간접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가공의 상황을 설정해서 임과의 사랑을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임과의 거리로 인해 대상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여성적 어조를 활용해서 공감과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시각과 촉각의 심상을 활용해서 임의 모습을 감각화하고 있다.

22. (가)의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도 · 나 이시랴 ㅎ · 더면 가라마니 · 니 ㉠ 구트 이여 보내고 그리니 · 니 情(정)은 나도 몰라 ㅎ · 노라.
- ② ㉡ 도 · ㉢ 하 노피곰 도도 · 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존 도 · ㉣ ㉤ 드르더 올세라.//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 도 · ㉥ 점그도 ㉦ 세려.
- ③ 임은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강을 건너시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을 어찌할거나.
- ④ 구름이 無心(무심) ㉧ · 니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 ㅎ · 다. 中天(중천)에 ㉨ 이셔 任意(임의)로 도 · 니니면서 ㉩ 구트 이야 光明(광명) ㅎ · 니 날빛츠 · ㉪ ㉫ 라가며 덩 · 니니
- 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 · ㉭ 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나마 가지마다 간 도 · ㉯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니 · ㉰ 애로 님의 오스기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 · 셔도 내 님 조츠 · 려 ㅎ · 노라.

23.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설화적 인물을 시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 ② ㉡ : 화자의 염세적 운명관을 엿볼 수 있다.
- ③ ㉢ : 화자의 정서가 응축되어 있다.
- ④ ㉣ :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 (가)와 (나)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육신이란 껍질에 불과해서 껍질을 벗어도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 ② (나) : 사랑의 추억은 노년의 방초도 그리움의 대상으로 만들지요.
- ③ (가) : 나를 지탱하는 한 축은 옛사랑의 추억이에요.
- ④ (나) : 그런 추억이 아픔이 되고 또 위안이 되지요.
- ⑤ (가) :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요.

25.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화된 자연물로 인해 화자가 처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군.
- ②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염원이 강조되고 있군.
- ③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존재와 부재를 감각화하고 있군.
- ④ 화자의 상념은 '산문'이라는 종교적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군.
- ⑤ 독백조이지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글씨는 사회적 약속이나 실용적 요구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정신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읽기 쉬우냐 아니냐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철저하게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여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곧, 문자를 조형적 대상으로 삼아 점획의 형태와 필선의 질량 등을 생각해야 비로소 글씨의 예술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글씨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글씨는 먹으로 표현된 필선(筆線)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탕의 여백(餘白)으로 구성된다. 곧, 종이나 천 등의 바탕에 붓으로 먹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느냐와 점획·짜임·행 등을 어떻게 구성하여 여백을 처리하였느냐가 글씨의 기본 틀인 것이다.

(다) 그런데 바탕에 뻗은 먹물은 단순한 무채색의 검정이 아니라 다채로운 검은 색을 띤다. 먹은 산소의 공급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얻은 검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다. 하지만 나무의 종류나 연소 방법의 차이 또는 물과의 조합 비율에 따라 미미하게 흑자색이나 암청색 등의 다양한 색깔을 띠기도 한다.

㉠ 또한 여백은 단지 글씨를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쓰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과 글자의 짜임 등을 고려하여 제작자의 심미안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곧, 먹색이 글자를 나타내는 (㉡)(이)라면 여백은 그것을 지탱해 주고 감싸주며 먹색의 효과를 한층 높여 주는 (㉢)인 셈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잘 조화시킨 글씨야말로 감상자의 눈을 이끄는 성공작이 된다.

(라) 이와 같이 글씨는 흑과 백의 조화이며, 그 표현 효과는 마치 근대 미술에서 말하는 단색조(單色調)의 색채미와 유사하다. 그림에서는 먹물의 농담과 채색의 양을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감상의 영역을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이에 비해 글씨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색조의 먹색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용묵법은 서예가들의 주된 관심거리이며, 그런 점에서 먹색은 글씨 감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 글씨는 한 번 쓰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흔히 글씨의 일회성(一回性)이라고 한다. 그림에서는 여러 번의 붓질로 형상을 묘사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붓질을 더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씨에서는 가필(加筆)이나 보획(補) 등의 행위를 꺼리는 전통이 있다. 가필이나 보획을 하면 당장은 글씨가 나아진 듯하지만, 먹물이 마른 뒤에는 그 ㉣자취가 남아 결국 글씨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이에 가해진 붓의 압력(壓力) 등이 결코 똑같이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26. 위 글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글씨의 특성을 통해 글씨 감상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글씨의 특성을 근대 미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글씨의 특성을 전통적인 용묵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글씨의 특성을 구체적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글씨의 특성을 글씨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7. (다)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흑자색과 암청색을 얻기 위해 늘 먹을 시험해 본다.
- ②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많은 습작을 통해 여백의 효과를 관찰하고 시험한다.
- ③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먹을 만들 때 검댕의 상태와 특성을 섬세하게 관찰한다.
- ④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먹물의 농담과 채색의 양을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감상의 영역을 확대시키려 한다.
- 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예가들은 먹색을 단순히 검정으로만

변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군자는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을 때에도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다. 즉 소인은 자기 밖의 변화에 따라 안이 달라지는 사람이지만, 군자는 밖의 변화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군자를 선비, 대인이라는 말로도 부른다.

그러면 맹자가 말하는 군자·선비·대인은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맹자는 소인과 대인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나눈다. 대인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을 다스리고, 그 대가로 남이 생산한 식량을 먹는 사람이다. 반면에 소인은 몸 고생을 하면서 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맹자가 본 본성이 착한 사람은 사실상 통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통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다. 맹자는 현실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지배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들어 있는 선(善)의 요소를 완전히 발휘하여 현실의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는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민주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지배 계층의 이익에 봉사한 사상가였던 것이다.

36. 위 글에 드러난 ‘맹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감각보다는 마음이 훨씬 고귀하다.
- ② 생활 근거가 없으면 군자도 소인이 된다.
- ③ 인의예지는 도덕 법칙이지 본성이 아니다.
- ④ 군자가 생산한 것을 소인이 먹어서는 안 된다.
- ⑤ 소인도 자신의 본성을 가꾸면 군자가 될 수 있다.

37. ㉠~㉣ 중, 의미하는 바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38. ㉠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함포고복(含哺鼓腹) ② 견리사의(見利思義)
- ③ 천지불인(天地不仁) ④ 선견지명(先見之明)
- ⑤ 추원보본(追遠報本)

39.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맹자’가 ‘제선왕’에게 하고자 한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자신도 덕(德) 있는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니, 맹자가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에 왕이 혼중(鐘)에 쓸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살려 주어라. 부들부들 떨면서 죄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구나.”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들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런 문답 끝에 맹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즉, 짐승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왕의 그러한 마음이 곧 군자의 인(仁)이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 혼중 : 새로 만든 종에 희생(犧牲)의 피를 바르는 종교적 의식

- ① 마음속의 인의예지에 따라 통치한다면 덕치를 구현할 수 있다.
- ② 소인의 변하는 마음을 변치 않도록 이끌어야 덕 있는 왕이 될 수 있다.
- ③ 군자가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훌륭한 왕업을 이룰 수 있다.
- ④ 백성의 곤궁함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면 왕으로서 달리 더 할 일이 없다.
- ⑤ 백성이 항상 생활 근거를 갖도록 해 주면 덕은 자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다.

40.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맹자가 살았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 ② 맹자의 본성론에 담긴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 ③ 현재의 관점에서 맹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 ④ 맹자에게서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덕목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맹자의 본성론을 설명하기 위해 군자와 소인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 형태로서의 영화는 여타의 예술 매체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회화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선, 질감, 색채, 질량 등을 사용하며, 또한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극적 사건, 얼굴 표정, 대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영화는 음악이나 시처럼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운율과 이미지와 은유와 상징을 사용한다. 또는 무용이나 무연극에서처럼 움직이는 (㉠)을(를) 통해 일련의 운율적 재질을 창조한다. 그리고 영화는 소설처럼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여 무한히 넓고 깊은 차원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

(나) 이런 무수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여전히 독특한

예술이다. 특히 자유로우면서도 지속적인 (㉠)의 역동성에 있어서는 어떤 예술과도 다르다. 영화는 시각, 음향, 움직임에 의한 동시적인 의사소통이 수월하므로 회화나 조각에 비해 한결 복잡한 감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영화는 연극에 비해 장면 전환이 훨씬 자유롭다. 간단없는 영상의 흐름은 장면의 전환 시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어둠의 순간도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매 장면의 선명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 또한 영화는 소설이나 시처럼 인쇄된 지면의 추상적 상징이 독자의 두뇌 작용을 통해 시각 영상과 음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각 영상과 음향을 통해 의사소통 하는 예술이다.

(다) 영화는 주제만이 아니라 소재에 접근하는 시각의 범위에 있어서도 무한하다. 영화는 서정적인 것에서 서사적인 데 이르는 어떤 영역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순전히 객관적인 것에서 극도로 주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 담아낼 수 있다. 또한 피상적인 현실성이나 감각적인 것은 물론 지적이거나 철학적인 것까지도 포착할 수 있다. 시간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먼 과거나 미래를 간단없이 오가고, 불과 몇 초를 몇 시간처럼 확장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한 세기를 몇 분으로 압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섬세하며 연약하거나 아름다운 느낌에서부터 가장 야수적이고 폭력적이며 강박적인 감정에 이르는 온갖 인간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주제나 그 취급법의 무한한 영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본질에 관계없이, 영화 매체가 전달하는 전적인 현실감이다. 현실감이란 무엇보다도 영상과 음향과 움직임이 지속적인 흐름, 즉 화면상의 모든 것이 현재 시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관객이 스크린에 투사되는 환영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영화적 특성이다. 이처럼 가장 완전하면서도 극단적인 (㉡)이(가) 영화를 통해 현저한 리얼리티를 형태 짓고, 또한 정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마) 영화의 역사는 사실상 위대한 리얼리즘을 향한 방대한 진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회화에서 사진으로, 영상의 투사로, 음향으로, 색채로, 그리고 대형 화면과 입체 화면으로 면면히 발전해 왔다.

41. 위 글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 ①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와 소재는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 ②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통해 정서와 감각의 효과를 창출한다.
- ③ 영화는 막간으로 인한 물리적 단절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영화는 현대시처럼 복잡하고 섬세한 운율과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다.
- ⑤ 영화는 영상과 음향을 두뇌 작용의 매개를 거쳐 복합 감각으로 전환한다.

4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영화와 다른 예술의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영화의 독특함을 다른 예술과 대조하고 있다.
- ③ (다) : 영화의 접근 영역과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영화의 주제와 현실감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영화의 발달사를 집약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43. <보기>와 같은 관객의 반응을 초래한 요소가 아닌 것은?

<보기>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동안 한 사내가 좌석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좌석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다. 순간 영화에 빠져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던 한 관객이 그의 팔을 짊 움켜쥐면서 소리쳤다.

“앉아, 이 바보야! 너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그래!”

화면에서 악당은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 ① 영상 ② 음향 ③ 환영
- ④ 현재 시제 ⑤ 추상적 상징

44.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이미지 — 영상 — 환상
- ② 이미지 — 환상 — 영상
- ③ 영상 — 이미지 — 환상
- ④ 영상 — 환상 — 이미지
- ⑤ 환상 — 이미지 — 영상

45. <보기>를 덧붙여 위 글의 논지를 보강할 때, 글 전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종적인 산물이 예술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 뒤에 존재하는 인간 정신이다. 카메라와 필름은 단지 영화감독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감독은 모든 영화적 인자를 통합하고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따라서 영화의 스타일과 감독의 스타일은 동일하다 해도 무방하다. 감독은 자신의 지성, 감수성, 상상력 등을 통해 영화를 구성하고 주조하며 형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창조적 개성을 드러낸다.

- ① 영화 기법의 진화 과정
- ② 영화감독의 창조적 개성
- ③ 영화의 기능과 리얼리즘
- ④ 영화 예술의 영상적 한계
- ⑤ 영화의 특성과 예술적 자질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친구가 왜 나같이 좋은 소설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작가를 묻고 늘어지는 것일까. 통속소설이나 [가] 쓰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교묘하게 누리고 있는 작가들, 문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감상적인 수필을 베스트셀러에 올리고 있는 저자들한테나 이 친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굴복을 시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준규는 잠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선 ㉠『염소의 노래』는 제목부터가 동화적이어서, 원래의 중후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 보니, 희랍 전통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소포클레스·에우리피데스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작가 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대로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극, 즉 트라고디아의 어원이 염소를 의미하는 트라고스와 노래를 의미하는 아오이도스의 합성이라고는 하지만, 염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희랍 제사의식을 알지 못하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르게 느껴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소. 하지만 제목을 ‘비극’이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하겠소. ‘염소의 노래’라고 해야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만우 씨는 대꾸하기도 귀찮았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물리지 않기 위해 일단 나름대로 방어를 해 보았다.

“바로 그 점이 문제란 말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독자들 눈치나 보고 잘 팔릴 제목을 고르는 거 말ियो. 그래,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여 많이 팔리더라도 했습니까?”

㉢만우 씨는 서점을 서너 군데 둘러도 『염소의 노래』가 눈에 띄지 않던 민망스런 정경을 떠올렸다. 『염소의 노래』라고 사온 것조차 『염소의 배꼽』이지 않은가.

“제목은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런 비겁한 자세 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작가의 말에서 밝힌 대로 이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려고 했다면, 소신껏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온갖 계층의 독자들 눈치를 보느라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말입니다.”

“작품 주인공이 그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뿐이지, 작가인 내가 눈치를 본 것은 아니오.”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성격의 ㉣나승식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려 보이려면,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우 씨는 그때서야 아, 『염소의 노래』 주인공 이름이 나승식이었지, 하고 기억이 되살아났다.

“총체적으로 그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그린다는 말인데, 오히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나승식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객관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것은 객관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우유부단한 나승식 그 사람 자신의 위치일 뿐입니다. 그런 ㉥고립된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파편처럼 흘러만 가는 겁니다. 80년대 최대의 비극인 광주사태조차도 나승식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린다고 했지만, 결국 떠내려가는 ㉦세태의 파편들만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파편들을 많이 모아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총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의 확고한 인생관·세계관, 다시 말해 절묘한 세계 해석이 있어야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성기, ‘우리 시대의 소설가’에서 -

46. 위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공방을 통해 극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두 인물의 내면을 꿰뚫는 서술자를 통해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어 작품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7. [가]에 나타난 ‘나’의 심리를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예의가 없군.
- ② 빛 좋은 개살구라더니, 말만 번지르르하군.
- ③ 누워서 침 뱉는다더니, 제 주제를 파악 못하는군.
- ④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무슨 속셈으로 저러는 거야.
- ⑤ 검고 흰 것도 못 가린다더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시인의 태도가 느껴지는군.

50. 위 글의 맥락으로 볼 때, **그런 비겁한 자세**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8. ㉠과 ㉡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② 현실에서 과거로 국면을 전환시킨다.
- ③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④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 ⑤ 독자가 인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49. '민준규'의 관점에서 <보기>의 시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 ① '기침을 하자'라는 말을 현실 극복의 의지로 본다면, 시인의 소신이 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눈'의 순수한 이미지를 빌려 불순한 일상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이라면, 적어도 혼탁한 세상과 영합하지는 않았군.
- ③ '눈'과 '가래'로 당대의 뼈아픈 현실을 선명하게 대비시킨 것으로 본다면, 시인의 절묘한 세계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점층적 구성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소설에서도 이 기법을 차용하여 현실의 파편을 엮어나가는 게 좋겠군.
- 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본다면, 당대의 비극적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